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7.(목) 11:00 < 8. 18.(금) 조간 > 배포 2023. 8. 17.(목)

소통으로 모색해 나가는 석유산업의 미래와 혁신

- 석유업계의 경쟁력 강화, 신사업 투자 적극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경성 2차관은 8. 17일(목)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민-관의 소통을 더욱 원활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업계 참석자: SK에너지 조경목 대표이사 사장,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 사장, 에쓰오일 류열 전략/관리총괄사장,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 사장

최근 국내 석유업계는 세계적인 탄소 중립화 속도에 맞춰 기존의 석유정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첨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친환경 바이오 연료, 청정수소,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주유소의 친환경화(전기·수소 충전) 등 다양한 친환경·신사업 투자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신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투자 사업(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성 2차관은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석유업계가 이를 효용과 혁신의 기회로 삼고,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 다각화 노력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란다.” 라고 밝히며,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규제 개선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임미정 (044-203-52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